

지질학자의 해설이 있는 마이산 특색 탐방

전북대 생활과학교실서 주관

학교 밖 대표 과학프로그램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전북대학교 생활과학교실에서 특색 있는 탐방을 진행하여 관심과 눈길을 끌었다. 전북대 생활과학교실은 지난 주말 진안-무주권, 고창-부안권 국가지질공원 인증과 육성을 위한 전라북도 노력에 발맞춰 학생들과 도민들에게 진안 마이산의 학술적인 가치와 지질학적인 해설시간을 가졌다. 도내 학생들과 학부모 40여명이 참여한 이번 탐방에서는 단순한 만들기 기식 체험과 스쳐지나가는 탐방이 아니라 우리 고장 명소에서 과학적인 의미를 찾은 데 큰 의의가 있다. 청소년 뿐만 아니라 성인, 유아·다

문화, 저소득층 등 다양한 수혜자를 대상으로 운영되고 있는 생활과학교실은 미래창조과학부와 한국과학창의재단이 지역자치단체와 협력하여 운영되고 있는 대표적인 과학체험프로그램이며 과학기술진흥기금과 복권기금을 재원으로 전국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전문회(학부모)씨는 "미령에서 나고 자랐지만 그 동안 마이산을 보고만 있었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이런 건 생각해본 적이 없었는데 이런 기회를 통해 알게 되어 좋았다"고 말했다. 이정후교수(생활과학교실 책임위원장)는 "생활과학교실은 창의 생활



이번 탐방은 진안 마이산의 학술적인 가치와 지질학적인 해설시간의 장이었다.

과학교실, 나눔생활과학교실, 다양한 차 놀릴 계획"이라며 "이번에는 부메이크 과학교실 뿐 만 아니라 직접 안 탐방도 추진 중이며 학술적인 가치 있는 마이산은 우리고장의 자랑이다"고 말했다. /인진수 기자

전주시육아종합지원센터, 출산장려 가족행사 개최

전주시육아종합지원센터(센터장 김나립)에서는 20일 아이낳기 좋은세상 전주운동본부와 함께 출산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 및 인식개선을 위해 제 2회 행복한 가정·사랑 더하기 라는 슬로건으로 지난 20일 오랜디스 웨딩홀에서 출산 장려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전주시에 거주하는 출산 가능 부부 40쌍(80명)이 참석한 가운데 저출산 극복을 위한 시민들의 출산관련 인식 고취 및 출산장려 친화 분위기 조성을 위해 마련됐다. 이날 △출산장려행사 UCC 동영상, △산타공연, △가족행복 레크레이션, △우리부부 추억 영상, △두 번째 프로포즈, △부부행복세미나 부모교육으로 참여하는 부부의 참모습과 가족간의 사랑과 소중함을 느끼는 가족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우종상 복지환경국장은 "21일은 둘(2)이 하나(1) 된다는 뜻으로 부부관계의 소중함을 일깨우고 화목한 가정을 가꾸어 가지는 취지의 날이다"며 "가정의 기초인 부부가 튼튼해야 가정이 무너지지 않고 행복 할 수 있으며 모든 것을 이겨 나아갈 수 있는 힘"이라고 말했다. /김영재 기자

전주시의회 문화경제위, 수원화성 등 관광우수사례 비교견학

전주시의회 문화경제위원회(위원장 박해숙)가 23일부터 25일까지 3일간 수원 인천 부여 등 타시도 관광문화 우수사례 비교견학에 나섰다. 위원회는 첫날 세계문화유산 지정으로 매년 국내외 관광객이 끊이지 않고 있는 수원 화성을 비롯해 화성행궁, 지동 벽화마을 등을 연이어 방문했다. 의원들은 수원화성의 관광특구 지정을 통한 관광객 유치 활성화 및 체류형 관광 인프라 구축 시설들을 둘러보고 우리시 한옥마을 관광특구 지정 논의와 더불어 관광지원의 연계 방안을 모색했다. 이 밖에도 위원회는 용인 한국민속촌, 인천 개항장 일원, 부여 백제문화단지 등 특색 있는 관광 마케팅으로 관광객 유치에 성공한 관광산업 활성화 우수 사례들을 탐방했다. 박해숙 위원장은 "이번 비교 견학을 통해 얻은 아이디어를 외국인 관광객 유치 관광지원 연계 등에 도움이 되도록 의정활동을 활발히 전개하겠다"며 "앞으로도 타시도의 좋은 사례는 우리시 특색에 맞게 접목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영재 기자

민주평통 전주시협의회, 전국 청소년 댄스퍼포먼스 개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전주시협의회(회장 나춘균)는 22일 청소년들의 통일열정을 댄스에 담아 표현하는 제3회 통일대한민국 전국 청소년 댄스퍼포먼스 대회를 전북도청 야외공연장에서 1,0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했다. 올해 3회째인 이 대회는 댄스퍼포먼스 문화 콘텐츠를 이용해 청소년들이 통일에 대해 자연스럽게 친숙하게 관심을 갖고 통일은 신나고 행복한 미래라는 인식을 심어주고 있다. 대회는 1차 영상예선을 통과한 17팀이 당일 오후 2시부터 2차 예선을 거쳐 최종 10팀이 본선에 진출하는 방식으로 진행해 공정성을 기했다. 이날 대회에서 영예의 대상은 전북 맨스연합팀인 '썬이레'가 수상해 200만원의 상금을 차지했다. 금상 천안 스페셜 컵션, 은상 마산 '아트리', 동상은 서울팀인 '임팩트'에게 돌아갔으며 장려상에 '제너리 와 킹 센세이션', 인기상에 믹스 앤 매치 팀이 각각 수상했다. /김영재기자

전북은행장학문화재단, 'JB창의적 진로체험' 실시

23일 (재)전북은행장학문화재단(이사장 김영규)에 따르면 중학생을 대상으로한 '제1회 JB창의적 진로체험'이 전북은행 3층 소강당에서 지난 21일 실시됐다. 이날 행사는 자유학기제와 관련 도내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직업체험의 기회를 제공해 스스로 꿈과 끼를 찾고 자신의 적성과 미래에 대해 탐색 및 설계하는 경험을 제공해 창의적인 인재로의 성장을 돕고자 실용디자인에 관심있는 학생 2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전북도교육청 공고를 통해 각 학교에서 추천을 받은 도내중학생 20명은 자신의 적성과 성향을 분석하는 적성탐색검사와, 현재 인터라더디자이너로 활동하고 계시는 강사님을 초빙하여 실용디자인 직업체험등을 실시했다. 행사에 참여한 김수연 학생은 "나의성향과 적성에 맞는 직업을 알게 되어서 꿈을 찾는 데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정영수 기자



노송동, '얼굴없는 천사의 거리' 노후 담장에 벽화 그리기 나서

노송동(동장 박병국)에서는 23일 (사)함께하는 사랑밭과 세플러코리아 사원 등 30여명은 노송동 주민센터 인근 '얼굴없는 천사의 거리'에서 퇴색한 노후 담장에 도색과 함께 벽화를 그리는 등 지역 환경 개선에 나섰다. 노송동 동장(박병국)은 "천사의 뜻을 널리 기리고 그의 선행을 본받자는 의미에서 아끼지키던 스토리를 지닌 벽화가 화사하고 정감있게 그려졌다면서 "지속적으로 벽화 그리기 활동을 갖겠다"고 약속했다. /김영재 기자



완산구, 거동불편 어르신 40여명에게 보행보조기 지원

완산구(구청장 최락휘)는 23일 거동이 불편하신 저소득 어르신 40명에게 사립의 보행보조기를 전달했다. 완산구는 노인의 사회활동 제고 및 노인권익 증진을 통한 노인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어르신 보행보조기 지원 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펼쳐 오고 있다. 신청대상자는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의 A,B등급자 중 거동이 불편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의료급여법에 따른 어르신들이 해당된다. 유정옥 가족청소년과장은 "이번 노인보행보조기 지원사업을 통해 노인성 질환과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어르신들에게 거동불편 해소와 이동권 보장에 큰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영재 기자

인후3동 새마을협의회, 친목도모 위한 선진지 견학

인후3동(동장 최성식) 새마을협의회(회장 황승일) 회원 30여명은 지난 22일 친목 도모를 위해 선진관광지 태안반도를 방문했다. 이번 선진지 견학은 그동안 새마을협의회 회원들의 수고를 격려하고 단합을 위해 마련됐다. 황승일 인후3동 새마을협의회장은 "오늘 하루만큼은 우리 회원들이 마음을 터놓고 상호 소통하는 시간을 가져서 기쁘다"며 "앞으로 회원들이 더욱 끈끈하게 단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영재 기자

서신동, 취약계층 방문 청소봉사활동

서신동(동장 안규태)은 23일 저소득 취약계층 가정을 방문, 청소봉사활동에 나섰다. 이날 봉사활동은 청소가 어려운 저소득가정 환경 지원을 위해 이날 초 구성된 '우리동네 클린봉사대'를 중심으로 주민자치위원 공무원 등이 힘을 합쳤다. 서신동 복지플래너들이 지역 내 어려운 가정을 찾아 상담 과정에서 발견한 이들 가정은 장애인 노환 등으로 거동이 어려워 집안 곳곳에 폐품 등 생활 쓰레기 등이 환경정비가 시급한 상황이었다. 청소봉사에 나선 우리동네 클린봉사대 15명의 자원봉사자는 3시간에 걸쳐 집안에 방치된 쓰레기를 치우고, 오염된 가구와 이불, 신발, 옷 등을 정리하는 등 집안 곳곳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소독했다. 안규태 서신동장은 "장애 등으로 거동이 어려워 청소를 못하고 비위생적으로 생활해오던 저소득 가정의 환경을 깨끗하게 청소하는 것을 도울 수 있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청소 서비스가 필요한 가정을 찾아 신속한 봉사활동으로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지원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영재기자



동산동 주민자치위원회 옥산둘레길 선진지 견학

동산동(동장 정용환) 관내 주민자치위원(위원장 김대기)과 자생단체임원 20여명은 23일 관광산업 우수사례 벤치마킹을 통한 지역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옥산둘레길 선진지 견학을 다녀왔다. 김대기 위원장은 "선진지 견학을 통해 주민자치위원회가 내실있게 운영되는 것은 물론 다양하고 유익한 정보를 얻어 더욱 활기찬 지역을 만들어 가는 계기가 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정용환 동산동장은 "앞으로도 많이 보고 배워서 우리 지역에 딱 맞는 사업을 벤치마킹해 주민자치센터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영재기자

현대차전주공장, 따뜻한 밥상 나눔에 3000만원 기탁

현대자동차 전주공장과 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 전주공장위원회가 전주시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따뜻한 온정을 건넸다. 현대자동차 전주공장(공장장 이석동)과 금속노조현대자동차지부 전주공장위원회(의장 안주열)는 23일 전주시장실에서 전주시자원봉사센터에 '따뜻한 밥상 나눔'을 위한 3000만원의 지정기탁금을 전달했다. '따뜻한 밥상 나눔'은 지난해부터 현대자동차 전주공장과 현대자동차지부 전주공장위원회가 전라북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이종성)를 통한 지정기탁으로 진행되는 사업으로, 현장에서 직접 음식을 조리한 청결하고 맛있는 점심식사를 지역의 어르신과 어려운 이웃들에게 무료로 제공하는 급식 프로그램이다. 자원봉사센터는 지난해 자생단체 자원봉사자 1000여명이 함께 참여해 완산구 평화동 주공아파트와 덕진구 동산동 주민센터 등 2곳에서 각각 7회씩 총 14회에 걸친 따뜻한 밥상 나눔과 한여름 삼계탕 나눔봉사활동 4회 등 총 18회에 걸쳐 백반(점심)과 삼계탕을 8000여명의 어르신들에게 제공했다. 전주시자원봉사센터는 지정기탁금으로 오는 6월 3일부터 덕진구 조촌동 주민센터에서 '따뜻한 밥상나눔' 봉사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김영재 기자·원주=이중복기자



우아2동, 독거어르신 방문 청소 봉사

우아2동(동장 이병권) 직원 등 6명은 23일 관내 독거노인 가정을 찾아 집안 청소 등 쾌적한 주거환경 만들기에 구슬땀을 흘렸다. 이날 직원들은 주방, 방바닥, 화장실 등을 청소하고 해충 및 악취제거제로 소독을 실시했다. 이병권 우아2동장은 "1인가구로 살면서 청소에 무관심하거나 어려움이 있는 가구를 발굴해 나도지봉사단 등 봉사단체와 연계, 청소 봉사활동을 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김영재 기자

전주매일		www.jmaeil.com	2016년 1월 23일 등록(일간)	
등록번호 전북 가00016		우 56091 전주시 완산구 기린대로 222-4층 (서노송동)		
부회장 김승근 전무 김관춘 편집국장 이백수				
대표전화 288-9700 업무국 FAX 288-9703 편집국 FAX 288-9704				
전주시	종인시	남원시	고창시	
010-9695-418	246-655	547-6855	010-9842-275	
삼천시	송천시	완주시	진안시	
010-233-499	255-204	246-6555	438-304	
서신시	팔복시	남원시	정읍시	
272-947	255-684	632-095	539-377	
호지시	고신시	순창시	장수시	
010-685-995	445-157	659-044	010-382-819	
	익산시	부안시	무주시	
	859-923	584-022	010-230-428	

*구독료 : 월10,000원, 1부 500원 인쇄인 이상현 본지는 신문윤리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